

# 전화판매 피해 1년새 3배 늘어

## 호남권 특수판매 피해 상담 6163건...건강식품 최다

(방문·다단계 등)

### 소비자원 분석

최근 건강과 참치(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홍삼 등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화권유(텔레마케팅)와 방문판매, 다단계 등 특수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다.

28일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 발표된 '2011년도 호남권 특수판매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호남지역(광주·전남·전북·제주)에 접수된 특수판매 관련 소비자 상담 중 건강식품이 10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습교재(564건), 회원권(46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건강식품 중에서 홍삼(207건), 인삼제품(41건), 식물추출물·발효제품

(30건), 키토산 함유제품(24건) 등에 대한 피해 상담이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전북이 414건(41.2%)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293건(29.1%), 광주 202건(20.1%) 순이었다.

지난해 호남지역 특수판매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6163건으로 전년(2204건)보다 180% 증가했다. 이는 전국 특수판매 관련 상담건수 증가율(156%)보다 23.7%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광주의 상담건수는 1539건으로 2010년 393건에서 세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전남(754→1944), 전북(963→2227), 제주(94→453) 지역 모두 특수판매 관련 피해가 급증했다.

특히 광주는 전화권유판매가 477건으로 전년(111건)보다 329.7% 급증, 전화권유로 물건을 구입할 때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

로 나타났다. 이외에 방문판매 280.2%(268건→1019건), 다단계판매 207.1%(14건→43건) 순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었다.

전남도 전화권유판매 590건으로 2010년(222건)에 비해 165.8%나 늘었으며, 방문판매 154.8%(520건→1325건), 다단계판매 141.7%(12건→29건) 순으로 조사됐다.

김종남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장은 "특수판매 형태로 구매계약을 할 경우 반쯤하는 경우를 대비해 구매계약서, 영수증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잘못된 계약임을 인지해 반쯤하는 경우 14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 표시해야 하며 구매물품 중 일부를 소비했다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공장 매각...전남방직으로 상호변경

## 광주권 지역경제 운동사 <18>

### 전남방직 서울이전 반대운동 ⑥

▲한국 총자산 80%가 귀속재산 김형남이 종방 광주공장을 불하받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일제가 남기고 간 귀속재산은 우리나라 경제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동적을 비롯한 일본인 자부들이 소유했던 귀속농지가 30만정도에 달했으며 이는 남한 경지면적의 14%에 이르는 규모였다. 무엇보다도 일본인 소유의 산업체가 3551개에 달했으며 이중제조업체가 2354개로써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체의 66.3%를 차지하고 있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비롯한 동산을 합치면 일제 귀속재산의 자산 가치는 우리나라 총 자산가치의 80%를 차지했다.(조선경제연보, 조선은행조사부 간 1948) 당시 일제의 귀속재산은 우리경제의 골간을 이루고 있었으며 이를 둘러싼 부정·비리가 당시의 정치·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불하대상이 되는 귀속재산의 정

부 평가액이 현저히 낮았고 산업체를 불하받을 경우 용자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다 상황조건도 최장 15년에 걸쳐 분할상환이 가능했다. 경제불안 때문에 물고기가 극심해 거의 무상이나 다름없었다.

## 귀속재산 처리서 낙오돼 외지인에 내줘 본사 서울 이전 움직임에 광주 민심 술렁

▲귀속재산이 경제주체서력 재편 무엇보다 일제의 귀속재산 불하가 단순한 식민통치의 경제 청산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를 이끌어 갈 주도세력을 결정하는 것과 다를 없었다. 일제가 남기고 간 산업시설이 우리 국가산업의 근간을 이루게 됐고 그 산업체를 소유한 사람들이 경제주체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은 '귀속재산

처리'라는 경제 주체의 재편 과정에서 낙오됐다. 광주·전남의 원자재와 인력으로 광주에서 성장한 중방광주공장마저 외지인에게 내주고 만 것이다.

▲본사 서울이전 소문, 시민 등요 중방광주공장을 불하받은 김형남은 상호를 전남방직(약칭 전방)으로 변경하고 전제 복구와 경영 정상화에 전념했다. 후생복지를 위해 전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한편 병원을 부설하고 중등교육과

정의 교육시설과 교회를 세웠다. 전방이 전방의 상처를 씻고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선두그룹으로 부상하고 있을 무렵인 1956년 여름 시중에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전방이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직접 사태 파악에 나섰다.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자 상공업계와 기관단체, 특히 전방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래처들은 긴장의 빛을 감추지 못했다.

전방 본사가 서울로 이전할 경우 모든 구매가 서울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고 계열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그 파장이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불안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지방세 감소로 재정적 타격과 전방이 이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금융 비중으로 볼때 시중은행이 안개 될 악영향을 간파할 수 없었다.

지방세의 경우 광주시가 추계한 세입간소액이 3000만원에 이르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의 지방세 징수 총액 1억3700만원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또 금융기관의 경우 예금 감소액이 6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대출은 9억여원의 감소가 예상되었다. 이는 당시 전남도내 금융기관 대출총액 40억7400만원의 23%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방의 경제권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광주는 민심



위중 (연론인)



스카프로 봄 멋쟁이 28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2층 스카프 매장서 직원들이 올 봄 유행할 작은 사이즈의 스카프를 선보이고 있다. 올 봄에는 작은 꽃, 동물, 기하학 무늬가 있는 스카프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제조업 생산 광주 '부진' 전남 '개선'

1월 광주 전년보다 16%↓·전남 7.8%↑

최근 광주지역의 제조업은 생산이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전남은 금속 가공 등의 호조로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된 '최근 광주·전남 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1월중 광주 제조업 생산은 전년 같은달에 비해 16.2%나 감소했으며 출하도 11.9% 하락했다.

내수부진에 따른 수출감소로 인해 전자부품(-20.2%), 전기장비(-19.1%), 자동차·트레일러(-16.9%) 등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출하도 고무·플라스틱(-12.3%),

자동차·트레일러(-12.4%) 등을 중심으로 감소로 전환했으며, 전기장비(-15.1%)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전남의 1월중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 증가했으며 4개월 연속 증가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기타 운송장비(92.1%), 금속가공(56.9%) 등이 대폭 늘었다.

출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54%)이 부진했지만 제1차 금속의 증가세(8.6%)가 확대되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했다.

1월중 건축착공면적은 광주가 크게 증가한 반면 전남지역은 비주거용을 중심으로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

다. 또 소비 판매역지수는 광주·전남 지역 모두 큰 폭으로 줄면서 감소로 전환했으며, 승용차 신규등록대수 역시 두 지역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2월중 수출은 광주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로 전환했으며 전남은 선박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소비자물가는 광주·전남지역 모두 상승세가 둔화됐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광주의 경우 신학기 이사수요 등으로 오름세를 유지했으며 전남은 여권공단 증설에 따른 근로자 이주 수요로 오름폭이 다소 확대됐다.

실업률은 광주가 3.2%로 소폭 상승한 반면 전남은 2.5%로 소폭 감소했다. /이은미기자 emlee@

## 2월 대출금리 0.08%P 하락

2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소폭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2년 2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를 보면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5.71%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내렸다. 기업 대출금리는 5.74%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떨어졌다. 가계대출 금리는 5.67%를 기록했다. 2010년 3월 이후 최고치였던 1월부터 0.13%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 관계자는 "1월 수치 반등의 기저효과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월 금리는 대출수요 감소 등에 따른 전달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크게 올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금리도 일제히 하락했다. /연합뉴스

# 지역 경기 봄바람 부나

소비자심리지수 104P...3개월 연속 상승

광주·전남지역의 소비자심리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된 '2012년 3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가 104로 전달(102)보다 2포인트 늘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100이상이면 경기상황을 낙관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뜻이다. /이은미기자 emlee@

현재생활행편CSI는 88로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생활행편전망CSI는 96으로 전달에 비해 3포인트 상승했다. 또 가계수입전망CSI는 100, 소비지출전망 CSI 109로 전달에 비해 3포인트, 2포인트 각각 올랐다.

현재경기판단CSI는 67로 전달보다 3포인트 상승했으며 향후경기전망CSI는 80으로 전달과 같았다.

6개월 후의 물가수준을 예상하는 물가수준 전망 CSI는 광주가 142로 전달보다 4포인트, 전남은 141로 5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연합뉴스

민속촌충장점 · 무진주 · 민속촌상무점

# 통큰 반값! 할인

고객감사 대표메뉴

EVENT

돼지갈비에 소주한잔! 모듬보쌈에 소주한잔!

1인분(230g) 9,500원 → 5,000원

**민속촌 충장점** 돼지갈비 · 고기구이

4월2일 월~4월6일 금

광주시 동구 호남동 73-2번지  
광주시 동구 중앙로 160번길 16-10

222-4815

2인분 28,000원 → 14,000원  
3인분 38,000원 → 19,000원  
4인분 47,000원 → 24,000원

**무진주 모듬보쌈**

4월9일 월~4월13일 금

광주시 동구 북로동 11-1번지  
광주시 동구 중앙로 160번길 16-13

224-8074

냉면전문점  
민속촌충장점 · 무진주 · 민속촌상무점  
행사기간 중 계산 금액에 따라 냉면 상품권 증정

계산금액	냉면 상품권
20,000원 이상	1장
25,000원 이상	2장
35,000원 이상	3장
45,000원 이상	4장

1인분(230g) 10,500원 → 5,500원

**민속촌 상무점** 돼지갈비 · 고기구이

4월16일 월~4월20일 금

광주시 서구 영촌동 885-1번지  
광주시 서구 문현로 143

376-9233

- 행사기간 중 포장 및 배달은 할인행사에서 제외됩니다.
- 행사기간 중 상품권 및 쿠폰의 사용은 안됨으로, 행사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 행사기간 중 [민속촌 충장점]과 [무진주]는 유료주차장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 행사기간 중 행사 진행 관계상 예약은 받지 못 합니다.
- 행사기간 중 행사메뉴를 드신 테이블은 포인트카드 사용과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 행사기간 중 편안한 식사를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일일적인 식사시간을 피해서 방문하시면 편안한 할인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